

## 제 7 과: 요한계시록 16 장

**생각해봅시다:** 무엇이 여러분을 화나게 합니까?

**시작기도:** 성령님, 우리가 이 시간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할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기 원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6 장을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툼 라이트의 책을 읽으십시오:**

어느 날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 예전의 개인 교사를 만났다. 나는 박사학위 과정의 초기 연구를 위해 전에 몇년 동안 그와 함께 신약 성경을 공부했었다.

그가 물었다. “요즘 어때요? 잘 지내죠?”

당시 나는 로마서 1:18-3:20 에 파묻혀 있었다. 바울의 독자라면 이 본문의 개략적인 주제가 모든 인간의 악, 다시 말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wrath)임을 알 것이다.

나는 실토했다. “실은 분노(wrath) 때문에 난감합니다.”

“우리 모두 그래요!” 그는 쾌활하게 대답한 뒤 자전거를 타고 갔다.

나는 그가 진심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진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진노 없는 하나님을 상상할 것이다. 사실 주류 서구 기독교의 대다수 분파는 바로 그렇게 상상했고, 그 결과를 전부 체득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20 세기 신학자 중 한 사람[또 그보다 훨씬 유명한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의 형제]인 리차드 니버 (Richard Niebuhr)는 언젠가 과도하게 극단적인 자유주의 기독교의 메시지를 외우기 쉽게 설명했다. “진노 없는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직무를 통해 심판 없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갔다.” 맏소사.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을 선호하겠지만, 이것은 분명 우리가 받은 복음은 아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은 분명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게 문제다. 모든 가정과 학교, 회사, 국가 등 어떤 조직과 체제에도 무슨 종류든 심각한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일이 틀어질 것이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 두려움, 의심이 개입할 것이다. 문제를 파악해 이름을 붙이고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는 더 악화될 뿐이다. 그 문제를 통제 없이 번성하게 놔두면, 그것이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찬양될 수도 있다. 20 세기 이야기의 한 부분은 바로 그런 이야기였다. 즉 새로운 존재 방식—공산주의와 파시즘, 아파르트헤이트는 가장 명백한 세 가지 사례다—이 추악한

머리를 쳐들었고, 사람과 사회에 막대한 해를 입혀 결국 자신의 무게, 특히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필요했던 거짓말의 무게에 눌러 붕괴되고 말았다. 리처드 니버가 진노와 죄, 십자가가 사라진 메시지에 대해 경고했던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것을 그가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그 순간에 우리를 안심시켜 잠들게 할 수도 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진노’는 주로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의 악이 작용해 스스로 파괴를 거두어들이게 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상황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직접 개입해 중단시키고 ‘타임’을 외치신다. 우리가 자신의 임무를 안다면, 우리는 이 두 내용이 과해 보이더라도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둘 다 필요하다. 만약 과하지 않다면, 문제의 악은 그냥 잠시 멈추고 한동안 이마를 찌푸린 다음, 이전처럼 계속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 처음 네 재앙에서 보는 것이 이 두가지 형태의 ‘진노’의 혼합이다 (141-142).

사랑의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은 언제나 정해진 시점 전에 개입해 ‘타임’을 요청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회개하고 구원을 받을 수도 있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애매한 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여 응보를 받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실 그때, 하나님은 당연히 세상의 사악함을 끝장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메시아 예수님의 아버지시라면 이렇게 하셔야 한다. 천사들이 땅과 바다, 강과 해에 진노의 대접을 붓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143, 144).

**참고:** ‘아마겟돈(Armageddon)’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6 장 6 절에 요한은 세상의 모든 왕들이 히브리어로 바로 이 ‘아마겟돈(Harmagedon)’이라는 곳에 모여 전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Har)’는 히브리어로 ‘산’을 뜻하며, ‘므깃도(Meggido)’는 이스라엘의 한 지명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Harmagedon)’은 ‘므깃도산 (Mount Meggido)’를 뜻합니다. 이 곳은 이스라엘 역사에 많은 전쟁들이 벌어졌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여기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쓰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모든 상징들과 마찬가지로 아마겟돈은 당시 서신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전쟁터’를 상징했던 곳이었을 것입니다. (톰 라이트의 147-148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 함께 토론해 볼 주제:

1.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명확하게 말합니다. 톰 라이트는 이 진노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독자들에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악이 작용해 스스로 파괴를 거두어들이게 하시고, 그것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직접 개입해 중단시킨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혹은 어떻게 여러분을 걱정하게 합니까?
2. 찬송 “In Christ Alone” 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었습니다.  
그에게 나의 모든 죄가 지워졌기에  
나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삽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희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마침기도:**

하나님, 당신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보다 지혜로우며, 당신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이 계획하신 때에 아름답게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신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세상에서 초조해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진노가 우리를 완전한 공의로 이끄를 깨닫지 못하고, 당신의 진노를 그저 꺼림칙하게만 여깁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당신이 그 날에 실현하실 아름다운 공의를 진정으로 사모합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